

“QR 찍어도 결제 불가”... 시장 곳곳서 상인·고객 불만 ‘폭발’

Q 르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유효하지 않는 QR’ 메시지 속출
고객들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조폐공사 “현행화 진행... 빠르게 조치”
결제·설치 문제... 소비자 불편 확산

지난 1일 출시 첫날 ‘떡통’으로 오명이 쓰여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 곳곳에서 기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나는 등 불안한 출발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앱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측은 5일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업데이트 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일 집에서 가까운 방학동 도개비시장을 찾았다. 전날부터 새로 선보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에 5만원을 충전해 장을 보기위해서다. 김씨는 그동안 전통시장에선 카드나 현금 외에 주로 종이로 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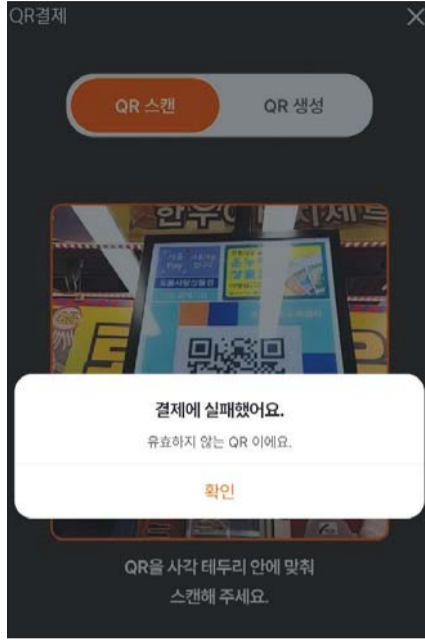
그러나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좀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애플리케이션(앱)을



서울 경동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내려받았다. 10% 할인 혜택도 있어 5만원을 충전하는데 실제로 4만5000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산 뒤 결제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가게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댔더니 ‘결제에 실패했어요. 유효하지 않는 QR이예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수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제에 실패했어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

또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인근에 있는 수산물 판매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 QR’이라는 메시지만 나타났었다. 옆을 지나던 행인은 “나도 다른 가게에서 해봤지만 결제가 되지 않더라. 1일부터 통합앱이 가능하다고 해서 앱을 다시 깔았다. 그후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 장을 본 3곳 모두 결제가 되지 않았다. 멀쩡한 앱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산물점 관계자는 “며칠전까지도 QR코드로 (고객들이)다 결제하고 가셨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알 수 없다. 바뀐 앱 때문에 QR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공릉동에 사는 최모씨도 지난 주말 같은 경험을 했다. 최씨는 “동네 시장 3곳에서 새로운 앱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QR코드를 바꾸지 않고 기존 QR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과 가맹점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현행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한 ‘모바일’을 하나로 묶어 지난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가 만들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출시 시기가 두달 늦춰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은 소진공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앱엔 가맹점 찾기 기능,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큰 글씨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충전 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첫 날부터 곳곳

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일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공식 앱스토어에서 새 앱을 내려받고 휴대폰에 깔아 세팅하는 과정에서 ‘떡통’이 되기도 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오픈 첫 날 동시 접속자가 43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는 통합앱 서비스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다.

사용자 Man DRAGON씨는 “앱이 실행도 안되고, 대기해도 접속 불가다. ‘일시적인 문제’ 오류만 뜨고 접근 권한 설정도 안돼 확인 버튼조차 눌러지지 않는다. 빠른 수정 없인 앱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성씨는 “온누리 가맹점 검색이 안된다. 앱이 어설피다. 이전 앱에선 전국 어느 가맹점 검색해도 가까운 거리 순서로 줄줄 검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조폐공사측의 성의없는 답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OMSCO(한국조폐공사)는 고객 댓글마다 “OO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무한 반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 관세피해 최소화... 피해 中企 지원 총력

중기부, 경영 정상화·수출 활로 모색
및 장관 “대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는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 등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울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달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울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

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3000개사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150억 투입

중기부,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

중기부가 10개 플랫폼사와 함께 브랜드 성장 시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해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각 플랫폼사의 상품기획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 ‘첫발’

포드 오토산과 프레스테스트 성공

현대제철이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현대제철은 튀르키예 완성차업체 포

드 오토산과 함께 탄소저감 자동차강판을 활용해 ‘포드 투어네오 커스텀’의 리어 루프 패널을 제작하는 프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 통과로 현대제철은 기존 고로 생산 방식의 자동차강판과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과 고로 쇳물을 혼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고로 복합 프로세스’ 양산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해민 기자 hyem@

에이스침대, 3년 만에 실적 반등 ‘성공’

전년비 6.4%·영업익 662억 기록
프리미엄 제품군 주력 등 ‘주효’

에이스침대가 3년 만에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에이스침대는 2024년 연결 기준으로 3260억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6.4%, 영업이익은 662억원으로 16% 각각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순이익은 659억원을 기록해 28% 늘었다.

회사측은 실적 반등의 이유로 ▲프리

미엄 제품군 주력 ▲체형형 매장 확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다각화 등 세 가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프리미엄 매트리스 라인업인 ‘로얄에이스(Royal Ace)’와 호텔형 침대 프레임 등 제품 고급화에 집중하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숙면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슬리프로노믹스’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